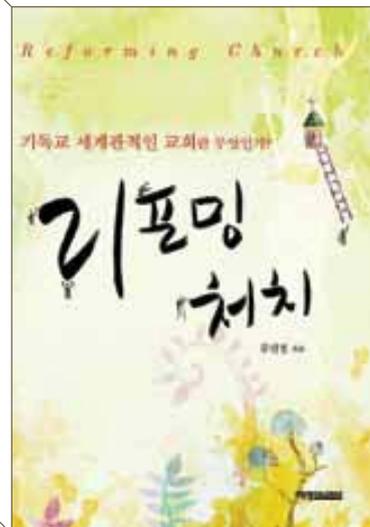


김신정 저 | 예영커뮤니케이션



서평 <리포밍 처치>

#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만드는 교회

##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 개신교 이야기이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후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작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부쩍 늘어난 교회 관련 서적들이다. 미셔널 처치, 슬로우 처치, 심플 처치, 이머징 처치, 에브리데이 처치(일상교회), 센터 처치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최근 또 한 권의 교회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다. 바로 김신정 목사의 『리포밍 처치』(Reforming Church)이다.

## 교회와 기독교세계관과의 만남

리포밍 처치를 번역하면 “교회 새롭게 하기”, “개혁하는 교회” 정도가 될 것이다. 제목만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지, 개혁하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 책의 부제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란 무엇인가?”이다. 『리포밍 처치』는 기독교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와 목회의 현장 속에 접목이 되고, 체화되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책이다. 그간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나왔지만 교회와 목회현장 중심의 접근이란 점에서 이 책은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신정** 한국외국어대학교(B.E)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MACS)하고 현재 삼일교회에서 30대 부부들의 공동체인 청장년2진과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를 담당하며 기독교세계관적인 목회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에 기독교세계관이 소개되고 세계관운동이 진행되어 온지 어언 30여년이 되었다. 그간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주로 학문과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뿐 기독교세계관의 목표대로 삶의 전 영역으로 그 실천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렇게 된 여러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회의 영역에서 정작 기독교세계관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은 뼈아픈 원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저자는 누군가는 이미 시도했어야 할 이 일에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그가 깃발을 흔드는 목적은 이것이다. 첫째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요, 다음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 기독교세계관의 효용성 문제

저자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세계관의 효용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복음과상황의 지상논쟁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났다. 포스트모던 사회,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기독교세계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혹 추억의 옛 노래를 리믹스 하는 격은 아닐까?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는 세계관’이란 넓은 의미가 아니고 창조-타락-구속으로 표현되는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이기에 더욱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하다.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것이 명제적, 사변적이란 것이다. 또한 변혁을 위한 실천전략과 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세계관 이론서가 아니기에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기독교세계관운동가로서 걸어온 삶의 행보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모습들

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이 목회에 접목될 때 제기될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다. 저자에게 기독교세계관은 오래전부터 삶이자 실천의 문제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저자가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운동’(www.clm.kr)을 세워 현재까지 교회와 성도의 삶의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독교세계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운동가로서 그의 헌신을 남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저자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기독교세계관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구조와 틀을 만드는 시도를 지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한 체계로서 작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오랜 고민을 통해 찾게 된 실제적인 전략과 가이드들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이 소개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용도 폐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듯 보인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만드는 교회

저자는 김전도사와 소빛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라는 가상적인 인물을 내세워 대화 형식으로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그려 나가기 시작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먼저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7가지의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안식이 없는 바쁜 주일, 둘째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 셋째 부족한 기독교교육, 넷째 교회 안에 갇힌 신앙, 다섯째 평신도 사역 부재, 여섯째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 일곱째 교제가 없는 교인 관계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수동적인 교인, 둘째 목회자와 교인에게 있어서 소명의 순수성 상실, 셋째 이원론적 신앙관 때문이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4가지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 평등한 교회,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다.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이런 4가지 지향점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고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만들어 가는 사역자를 양성하며 그들을 돕는 교회”이다.

저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살롬 목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살롬 목회는 ‘하나님과의 살롬’, ‘나 자신과의 살롬’, ‘이웃과의 살롬’이다. 이웃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환경과의 살롬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영혼구원을 넘어 십자가를 통한 만물의 회복(골 1:14~20)인데 바로 이 강조점이 살롬 목회에 나타나 있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교인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가 목표로 하는 교인상은 “철저히 헌신된 교회 일꾼(순장, 구역장, 교사)”이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철저히 헌신된, 전인적인 하나님나라의 일꾼”이다. 이 목표를 위해 저자는 ‘직업소명’을 강조한다. 저자가 ‘직업소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직업소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속으로 나아가는 것에 머물지 말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헌신된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임을 말한다.

전인적인 하나님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저자는 정식교인이 될 때 ‘교인서약’을 제시한다. 교인서약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의’로서 경건생활, 안식, 청빈생활, 미디어의 건전한 이용, 이웃에 대한 친절과 공의, 나눔과 구제, 가정생활, 기독교 교육의

실천, 친환경생활, 능동적인 정치참여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직분자 서약은 있어도 이런 생활규칙과 원리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저자는 이 서약이 새로운 율법이나 굴레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조화롭고 풍성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교인서약’에 이어 ‘주권선교사’라는 새로운 호칭을 제시한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역할을 인식하고, 선교사와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호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공부, 영역별 훈련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 주권선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주권선교사에 대한 교육은 8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 교육,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핵심전략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자는 ‘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교육은 세계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총 9개 장중에서 세 장(5, 6, 7장)을 교육에 할애 한다. 5장에서는 성인교육을 다루는데, 성인교육은 새신자교육과 기존신자 재교육,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는 마태복음 성경공부, 성경적용기본교육, 주권선교사 기본교육, 주권선교사별 사역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성경적용기본교육은 성경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주제는 가정, 이웃, 안식, 돈, 환경, 미디어, 정치, 철저한 헌신이다. 주권선교사별 사역실무교육을 마치면 주권선교사로 파송되고 사역을 시작한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따로 제자훈련생을 선발하여 시행하지 않고, 전 성도를 대상으로 주권선교사 교육을 시행한다.

6장에서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를 소개한다.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은 대개 주일 중심의 교육이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주일에는 온전한 안식을 위해 예배에 집중토록하고, 교회 일이나 성경공부를 하지 않는다. 대신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저자가 목표로 하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는 ‘하나님나라 시민윤리’를 가르치는 학교, 성경적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아이로 교육하는 학교, 아주 성실히 배우는 학교, 기독교적인 학문과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이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주말교회 기독교학교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7장에서는 주말교회 기독교학교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프로그램을 교안까지 제공하며 상세하게 소개한다. 기독교세계관이 교육과정과 내용에 적용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 주권선교사 공동체

한국교회 안에는 구역, 목장, 셀, 순 등과 같은 소그룹이 있어 공동체성을 지양한다. 전통적인 소그룹 구성 기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소그룹은 어떻게 구성될까? 8장에서 소개하는 주권선교사 공동체는 그 기준이 개인이 관심을 가진 사역이다. 주권선교사 공동체는 크게 직장영역, 선교영역, 이웃영역, 교육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영역마다 세부적인 셀로 다시 나누어진다. 직장영역에는 직장사역셀, 자영업셀, 의료셀, 간병인셀, 기독교학문셀, 목회셀이 선교영역에는 국내전도셀, 해외선교셀, 문서선교셀, 멘토셀, 중보기도셀이 있다. 이웃영역에는 가정사역셀, 구제셀, 봉사셀, 환경보호셀이 있고, 교육영역에는 교사셀, 교회학교셀, 야학셀, 공동육아셀이 있다. 주권선

교사 셀들은 자발성이 강하다. 교회적으로는 각 셀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조정하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따로 모임을 하지 않고, 각자 관심이 있는 셀에 속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다른 셀에 지원사역을 할 수도 있다. 셀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셀을 통해서 하려는 일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다.

###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 운동 확산을 위한 제언

기독교세계관이 강조하는 주제들은 이원론의 극복(신앙과 삶의 통합), 개인의 구속을 넘은 만물의 변혁적 회복(구속의 포괄성, 문화변혁), 복음의 통전성과 공공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의 증언 등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모델은 바로 이런 기독교세계관의 강조점들이 녹아든 교회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 그려진 소빛교회 즉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가 결코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 되고,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네트워크 하여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론의 정리이다. 『리포밍 처치』는 교회론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을 교회와 목회 현장에 접목한 모델을 제시한 책이다. 물론 그 현장 속에 교회론이 녹아 있겠지만,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교회론이 명확하게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리포밍 처치』에는 빠져 있는 ‘기독교세계관적 설교’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코 궁금해 할 영역이 바로 설교일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세계관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의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인 전성민교수가 세계관적 주해와 설교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며 학문적인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관적 주해와 설교 분야에 더 많은 연구와 나눔이 필요하다.

셋째는 『리포밍 처치』에 덜 강조된 것처럼 보이는 복음전도에 대한 부분이다.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박영덕 지음/생명의말씀사)라는 제목의 책도 있지만, 기독교세계관이 문화변혁, 사회변혁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음전도가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에 의하면 복음전도는 ‘궁극성(Ultimacy)’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는 의도적으로 더욱 더 복음전도에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서 사회변혁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적인 전도법이라고 생각되는 『냅킨 전도』(제임스 정 지음/IVP)와 같은 전도방법을 소개하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는 세속화 되고 혼합주의가 만연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원론 극복을 강조하는 기독교세계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의식구조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된 경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와 선함을 강조하며 죄 많은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창조세계에 뛰어들라고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은 국제신학대학원 김동춘교수의 지적대로 “세상의 악마적 질서와 구조와 대립하여 고민하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하게 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적응주의적 기독교 세속화 이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회와 목회

의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 모델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를 발견하고 공유함으로 현실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셔널 처치, 슬로우 처치, 티모시 켈러(Timothy J. Keller)의 책 센터 처치(Center Church) 등을 살펴보면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질은 만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웨신대 김선일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장소로서의 선교’, ‘이웃됨의 선교’, ‘일상의 선교’, ‘몸과 영혼을 통합적 존재로 보는 몸의 선교’, ‘삶에서부터 선교를 실천하는 보냄 받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중 ‘일상의 선교’와 ‘몸의 선교’, ‘보냄 받음’은 기독교세계관의 강조점에 잇닿아 있다. 하나님나라복음을 강조하는 나들목교회(www.nadulmok.org)의 4가지 핵심가치인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에서도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존의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리포밍 처치』는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에 대한 설계도이다. 아직은 상상속의 교회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운동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의 간절한 바람대로 기독교세계관적 교회의 꿈을 가지고 각자가 그려보고 또 이어가던 교회의 모습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점점 더 구체화 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이제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소빛교회와 같은 기독교세계관적 교회를 곳곳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